

#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5년 9월 1일 월요일 제613호

지면안내 04 기획  
누구든 환대받는 여행의 시작

05 사람사  
마음을 그리는 작가, 공감으로 청춘을 붙잡다

06 학술  
가상 공간에서 되살아난 현실의 몸짓

08 광고  
제59기 수습기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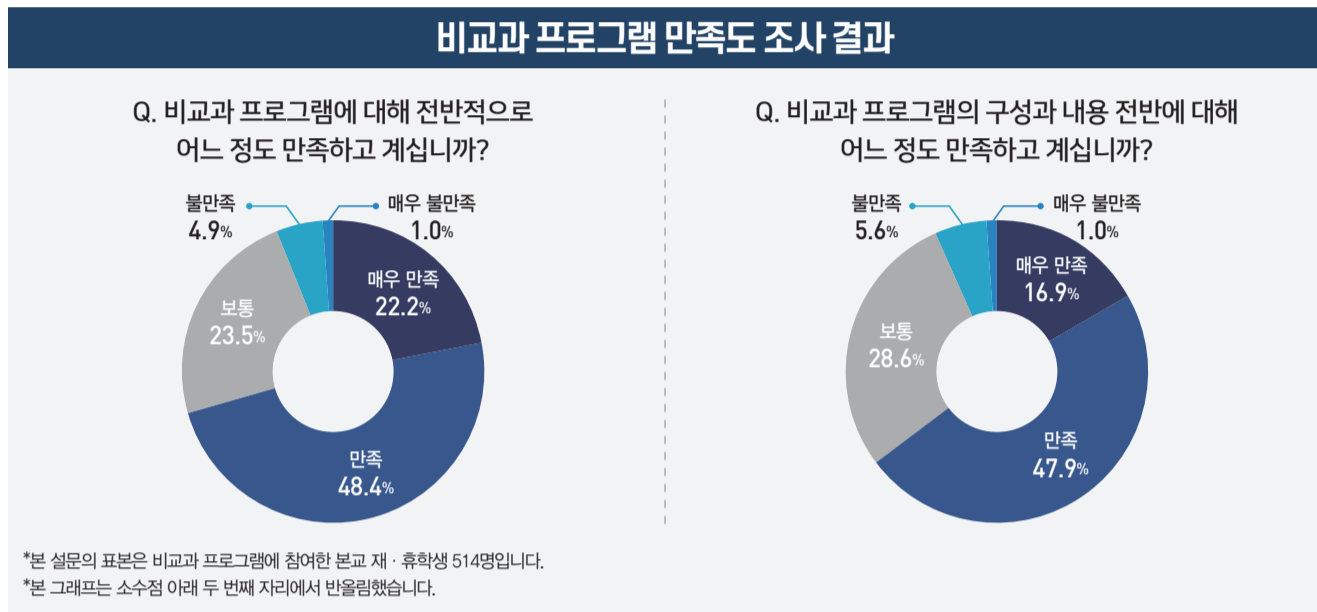
## 비교과 프로그램, 긍정 반응 속 개선 요구 이어져

본교는 2016년부터 학생들의 교과 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10년차에 접어든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습역량강화 ▲상담·심리지원 ▲진로·취업지원 ▲창업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분된다. 학생들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비교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이는 졸업 요건 및 '한성도전 장학금' 등에 반영된다. 특히 신설된 한성도전 장학금은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 실적을 기반으로 하며, 이번 학기부터 지급된다.

이에 본지는 비교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만족도 조사(이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진행됐다. 본교 재·휴학생 총 538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514명의 학생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 문항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을 비롯해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 만족도, 전공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비교과 프로그램 다양성 등으로 구성됐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다수의 응답자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22.2%)', '만족(48.4%)'의 응답이 기록되며 총 70.6%가 만족 의견을 남겼다. 만족의 이유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해서(69.1%)', '프로그램의 내용이 유익해서(38.0%)' 등의 의견이 집계됐다. 윤영준(인문 4) 학생은 "소모임이나 멘토링 등 학생들에게 친숙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교과 프로그램 및 비교과 포인트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의 학생이 만족의 의견을 표했다.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



는 질문에 '매우 만족(16.9%)', '만족(48.4%)'이라고 도출돼 총 65.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의 이유는 '비교과 포인트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72.8%)',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과정이 간단해서(64.8%)'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현은서(AI응용 1) 학생은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방법이 용이해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불만족한 학생들은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 내 비교과 포인트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비교과 포인트 현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53.3%)', '교내 시스템과의 접근성이 낮아서(40.0%)' 등의 이유가 제시됐다. 또한 사이트 접속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 학생은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 접속 시 로딩이 계속되거나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등의 오류가 자주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본부는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지영(학생성공센터) 교육연구교수는 "홈페이지 접속 오류는 이용자의 인터넷 환경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며 "문제

발생 시 학생성공센터 측에서 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뒤, 시스템 관리 업체를 통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 내 학사 정보 연동 및 포트폴리오 작성, 개인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 추천 등의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만족 의견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16.9%)', '만족(47.9%)'의 응답이 기록되며 총 64.8%의 학생이 만족 의견을 표했다. 학생들은 만족 이유로 '프로그램의 내용이 학습 외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어서(73.6%)'가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 전 학생은 "현직자 특강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자기관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반면 비교과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전반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학생들도 일부 존재했다. 획일적인 프로그램이 많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적다는 이유에서였다. 하호철(매선 1) 학생은 "프로그램의 안내가 충분하지 않거나 일률적으로 운

영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지는 문제가 있음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민경(미플 2) 학생은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에 접속할 때마다 각종 대화나 튜터링과 같은 유사한 프로그램만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학생들은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조사 시행, 아이디어 게시판 활성화 등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학생들의 의견이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 학생은 "학생들의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를 반영한 게시판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전공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의 안내·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과반을 웃돌았다. '전공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의 안내·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에 대해 '매우 만족(16.9%)', '만족(38.1%)', '보통(34.6%)', '불만족(8.9%)', '매우 불만족(1.4%)'의 답변이 기록돼 55.0%의 응답자가 만족했다. 구체적으로 '전공 연관성이 높아서(67.1%)', '전공 관련 프로그램의 홍보가 활발해서(39.9%)' 등의 답변이 기록됐다. 윤 학생은 "진로취업 멘토링을 통해 전공과 진로에 관

한 유의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전공 관련 프로그램의 안내·운영에 대해 불만족 의견을 표한 학생 중 일부는 전공에 맞는 프로그램의 수가 적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전공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의 안내·운영에 대해 불만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해 '전공에 맞는 프로그램의 수가 적어서(73.6%)', '전공 관련 프로그램의 홍보가 미흡해서(50.9%)' 등의 응답이 도출됐다. 김 학생은 "비교과 프로그램 중 전공과 일치하는 강의가 마련돼 있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황 학생은 "모집 중인 비교과 프로그램이 대체로 전공과 관련 없는 창업 강이나 교내 시설 이용 관련 프로그램이었다"고 지적했다.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이하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프로그램 참여 후 진행되는 만족도 조사는 비교과 포인트 지급에 앞서 시행된다. '비교과 프로그램 설문조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에 대해 '매우 만족(23.9%)', '만족(46.5%)'의 답변이 기록돼 70.4%의 응답자가 만족했다. 만족의 이유는 '설문조사 참여 과정이 간단해서(68.5%)', '설문조사의 구성과 내용이 다양해서(35.4%)' 등의 답변이 기록됐다. 전 학생은 "추가적인 자유 의견을 작성하는 문항이 선택사항이라 부담이 없어 좋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 대학본부는 글로벌 역량, 도전과 성취 영역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장 교육연구교수는 "토익 또는 영어캠프 등의 글로벌 역량 프로그램, 공모전이나 캡스톤디자인과 같은 도전과 성취 영역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유관 부서가 해당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 2025 한성대학교 디자인&스토리 공모전

**공모 주제**  
"한성의 오늘 이야기, 당신의 시선으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한성의 매력,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남들과 공유하고 싶은 순간을 콘텐츠로 표현해주세요!  
※ '한성이야기'는 학업, 동아리, 사람, 캠퍼스, 학교생활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접수 기간**  
2025년 9월 1일(금) ~ 10월 10일(금) 오후 6시까지

**응모 대상**  
한성대학교 재학생 (개인 또는 팀 최대 4인 참여 가능)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pr@hansung.ac.kr  
※ 이메일 제목: [공모전응모] 이름\_작품명\_공모부문 (접수양식참조)

**시상**

대상(1팀)	상금 150만 원 + 총장상
최우수상(각부문 1팀)	상금 70만 원 + 총장상
우수상(각부문 1팀)	상금 30만 원 + 부총장상
장려상(다수)	기념품 제공

※ 전 참가자 : 비교과 20pt

**공모 부문**

- 광고 (임시/홍보광고 등)  
: A3/홈페이지 배너(1790\*770px) 2개 이상 디자인 시안 제출
- 영상 (브이로그, 인터뷰, 홍보영상 등 자유 형식)  
: 스포츠 최소 3개 이상, 또는 일반 영상 5분 내외
- 굿즈 디자인 (티셔츠, 스티커, 텀블러, 문구류 등)  
: 2개 이상 디자인 시안 제출
- 홍보 아이디어 제안서 (학교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안, SNS 캠페인, 타겟 마케팅 전략 등)  
: 양식 참조

**문의처**  
02-760-4209  
글로벌상생홍보팀



# 자연에 깃든 학습의 장

▲상상관 12층이 새 단장을 마쳤다. 이번 공사는 학생의 학습 및 휴식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롭게 조성된 12층에는 개방형 학습공간과 카페가 마련됐으며 교내 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재조성된 공간은 융합형 학습공간과 카페 등으로 구성됐다. 융합형 학습공간은 복도에 위치한 개방형 시설로, 4~12인용 좌석과 바테이블이 마련됐다. 엘리베이터 옆에 위치한 카페는 '케이키친 한성'에서 운영하며, 1일부터 임시 개장했다. 카페의 구체적인 상호명과 운영 시간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상상관 12층 공사와 관련해 정도영(자산관리팀) 부팀장은 "학생들이 상상관 12층을 학습 및 휴식 공간 뿐 아니라 본교 근처의 자연 경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유롭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수윤 기자 wateryun77@naver.com

## 자기설계전공 신설

상상력인재학부 내 자기설계 전공이 신설됐다. 자기설계전공은 이번 학기 트랙신청 기간을 거친 후 2026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대학평의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지난 28일 자기설계전공 신설이 확정됐다. 자기설계전공은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제도다. 2025학년도 이후 상상력인재학부로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2학기 트랙신청 기간 전 '창의융합전공설계'를 이수한 학생이 전임교수와 면담 후 지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자기설계전공은 1트랙으로만 선택 가능하며, 2트랙을 제외한 교내외 ▲트랙 ▲전공 ▲학과 ▲연계전공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설계 과정에서 관심 분야 종사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기설계전공은 '학생설계형'과 '교수추천형'으로 구분된다. 학생설계형은 학생이 교과목을 직접 선택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교수추천형은 교수

가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관심사에 맞는 교과목 단위를 묶어 제시하는 방식이다. 학생설계형은 학생이 교과목을 묶음·개별 단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전공모듈조합형'과 '전공교과조합형'으로 나뉜다. 모듈은 학습과 연계된 교과목을 묶어둔 단위를 말한다. 전공모듈조합형은 9학점 이상으로 구성된 모듈을 조합하는 방식이며, 전공교과조합형은 개별 단위 교과목을 조합하는 형식이다. 학생이 설계한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의 이수를 위해서는 자기설계전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사·승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기 위한 학사 수준의 교과목인지에 대한 내용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3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학생이 명명한 세부전공명으로 학위가 발급된다. 자기설계전공 신설과 관련해 과 교수는 "자기설계전공을 통해 학생들이 제도 안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진로를 모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수윤 기자 wateryun77@naver.com

## 내일을 여는 도약



▲지난 22일 개최된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고 있다.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하 학위수여식)이 지난 22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부 468명, 석사 142명, 박사 16명, 콘텐츠디자인칼리지 41명 등 총 667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학부에서는 ▲이사장상 1명 ▲성적최우수상 1명 ▲특별공로상 1명 ▲한성인재인증상 1명 ▲총동문회장상 1명 ▲기업은행장상 1명 등 총 6명의 수상자가 있었다. 대학원에서는 ▲최우수

논문상 3명 ▲우수논문상 8명 ▲성적우수상 15명 ▲특별공로상 2명 ▲공로상 18명 ▲대학원 총동문회장상 2명으로 총 48명에게 수상이 이뤄졌다. 콘텐츠디자인칼리지에서는 ▲성적최우수상 1명이 수상했다. 학부 성적최우수상을 받은 김범진(사회과학 4) 졸업생은 "강의 내용을 전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화독을 반복한 것이 도움됐다"고 전했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 대학·대학원 학칙 개정, 변경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칙』과 『대학원 학칙』이 일부 제정 및 개정됐다. 『한성대학교 학칙』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명칭 변경 ▲자기설계전공 신설 등이 이뤄졌다. 『대학원학칙』에서는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개정이 이뤄졌다. 해당 제정 및 개정은 지난 7, 8월에 걸쳐 진행됐다. 『한성대학교 학칙』 제14조의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명칭이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로 변경됐다. 이는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규정』 정비 과정에서 전환했으나 학칙에는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김미정(입학관리팀) 팀원은 "입학처의 전반적인 규정 정비 과정에서 시의성과 현실성에 맞춰 명칭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상상력인재학부의 자기설계전공 관련 규정도 제정됐다. 『한성대학교 학칙』 제37조의 2에 따르면 해당 전공은 교내외의 ▲트랙 ▲

전공 ▲학과 ▲연계전공 중 두 개 이상을 선택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광미선(상상력인재학부) 교수는 "지난 학기에 전공 신설이 공지됐으나, 실제 운영이 이번 학기부터 시작되면서 학칙과 세부 사항을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원학칙』에서는 제10조의 비논문석사학위과정(이하 비논문과정)의 5학기 수업연한 의무 조항이 삭제됐다. 비논문과정은 추가학점이거나 종합시험 합격 등의 조건으로 대학원 학위 논문을 대체해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비논문과정 중 추가학점이수를 택한 학생에게 5학기 이상 등록이라는 별도 연한 규정이 부과됐으나 초과학기 등록으로 수정됐다. 이에 추가학점이수를 통해 졸업하는 경우는 4학기 외에 한 학기를 초과하기로 등록해야 한다. 정미영(대학원 교학팀) 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비논문과정 중

추가학점이수로 학위 취득을 하려면 4학기에서 추가 학기를 들어 재학생이 아닌 수료생으로 한 학기 더 이수한다"고 설명했다. 제13조 제3항의 비논문 과정의 학점 취득 요건도 정비됐다. 비논문과정 재학생은 기존에 최저이수학점 외 12학점을 추가로 취득해야 했으나, 개정 후 9학점으로 완화됐다. 정 팀장은 "비논문과정을 제외한 기존 학사제도의 경우 한 학기 최대 이수 학점이 9학점이기에 형평성을 고려해 학점 취득 요건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학점·학위 취득 조건도 변경됐다. 제13조 제2항과 제45조 제2항은 해당 학과의 최저이수학점 30학점을 학위 취득 요건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24학점으로 조정됐다. 이는 타 특수대학원의 학점 기준과 동일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다. 제14조의2는 삭제 조치되며 일

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학점 인정 기준이 일원화됐다. 타 대학원·학과와 교과목 학점 인정 범위가 석사과정은 최대 9학점, 박사과정은 최대 12학점으로 통일됐다. 기존에는 대학원별 학점 체계가 상이해 별도의 규정에 따라 학점 교류를 운영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기준을 단일화시킨 것이다. <별표1>, <별표1-2>, <별표2-1>의 외국인 유학생 전담 학과 중 운영되지 않는 학과가 통합·정비됐다. ▲글로벌부동산전공 ▲부동산금융·자산관리전공 ▲글로벌경영컨설팅전공 등이 외국인 유학생 전담 학과로 전환됐다. 동시에 글로벌부동산전공은 '글로벌자산관리전공'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영어 강의 과정이 도입됐다. 또한 부동산금융·자산관리전공은 '금융부동산자산관리전공'으로 명칭 개정이 이뤄지며 석사학위를 경영학석사 학위로 수여하는 것으로 개편됐다.

김혜유 기자 perple.pea06@gmail.com

# 2025년 9월 1일 ~ 10월 14일

# ROTC

##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 3.50이상 학점 시 100% 장학금 지원!  
(3.0 이상 시 70%, 3.0 미만 시 50%)
- 단기복무장려금 1200만원
- 매 학기 여우보생 장학금 100만원
- 입영훈련 봉급, 학군생활지원금 등

### 엄청난 장학금!

### 멋진 기회들!

### 다양한 활동!

- 일반 병사가 아닌 '소위'로 임관
- 미국 텍사스 A&M대학 리더십 연수
- 한성대학교 기숙사 우선 지원

- 1년마다 국내/해외 전·사적지탐방
- 학군단만의 축제 '무제' 진행
- 타 학군단과의 교류, 선배들과의 만남

문의 02-760-4178 한성대학교 학군단 행정실

한성대 학군단  
모바일 홍보관 >>

모집요강,  
인터넷 접수 >>



임기자의  
외교 노트

### 동맹과 족쇄 사이, 시험대에 오른 한미 관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재편 속,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국의 안보·경제 전략을 새로 그리는 분기점이 됐다. 회담에서는 ▲안보 및 방위 협력 강화 ▲한미 관세 협상 원안 유지 ▲경제·산업 협력 방안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기적으로 한 국제 질서 개편을 선언하며 이번 회담은 '동맹의 현대화'를 모색한 자리로 평가된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 양국이 안보·경제 분야에 서로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방비 증액'이 주요 의제로 꼽혔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군사적 압박 등으로 동북아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지며 한국 또한 한미 동맹 차원의 방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인상하도록 압박을 가해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현재 약 2.3% 수준인 국방비를 3.5% 선까지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박성용(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닌 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로 본다"고 전했다.

국방비 증액을 두고 전문가들은 단기적 협상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비친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증액으로 인한 책임이 과해져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예산 부담이 수조 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한국의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국방비 증액은 필요하다"며 "국가 전략과 예산 운용을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담을 통해 자동차 및 수출 품목별 한미 관세율 협상도 최종 타결됐다. 7월 31일 치러진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율 및 상호관세율은 25%에서 15%로 조정됐다. 이번 회담에서 타결됐던 자동차 관세율을 12.5%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유지된 채 상호관세율이 15%로 결정됐다. 그 대가로 한국이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석유 등 에너지 자원 구매를 약속했다.

관세율 협상으로 인해 수출 품목은 산업 안정성을 담보 받았으나 자동차 관세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관세 타결로 인해 한국 자동차 수출 산업이 가격경쟁력을 잃게 될 거라는 해석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 적용을 받아 왔으나 이번 관세 부과 정책에 따라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과 같은 15%의 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다.

경제 관련 안건으로는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핵심으로 격상됐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미국 현지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기술력을 제공하며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화오션 등 국내 빅3 조선업체를 필두로 추가 투자를 진행 중인 수십억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에 해당한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두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전략적으로 불균형한 협력이라는 분석이 제시된다. 미국 내 고용 창출을 위한 산업 유도 전략으로 해석되며 우리나라 내에서는 기술 이전과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석오(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이 사장은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확장시킬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미국에서 조선을 건조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불균형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탁월 외교·안보 노선을 보여주는 자리였다는 평가도 나타난다. 이전 회담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현재 미국이 동맹자 관계를 요구하기에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도, 안보·경제·산업 협력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내비쳤으나 그 안에서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경향도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상호관세율 15% 부과 조치는 고용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부터 상호관세율 10%를 부과했기 때문에 관세 인상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와 생산 축소로 이어지며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이사장은 "상호관세율 15% 부과는 기업의 영업 마진 축소시킨다"며 "수출 감소가 생산 축소 및 인력 감원으로 연결돼 특히 청년들의 취업 환경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 청년 어깨 위 무거운 건보료

감기 진료비로 수십만원을 내야 한다면 어떨까.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가 일부 청년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법률'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으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나 공무원과 같이 사업장에 고용돼 일정한 근로 시간이 발생하는 가입자를 의미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보험료 부담 의무 없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자를 지칭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가리킨다. 나영균(배재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는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거나 적어 직장가입자가 부양하는 가족으로 인정돼 의료 보장 차원에서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입자별 보험료 부과 체계도 상이하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가족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며, 세대주가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진아(이산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의 월급 등을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지만, 그 외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했기에 부과 체계가 구분된다"고 전했다.

상술한 가입 형태는 소득과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고용 관계로 계약된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때 소속 기관을 통해 가입

된다. 반대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다. 피부양자는 일종의 예외 사항으로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종합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각각 연 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구분되며 단기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은 직장가입자로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미 지역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넘어서는 소득을 가진 청년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회보험제도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다. 이 노무사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제외되는 법령들이 있고, 사회보험제도에서도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직장가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김종명(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는 "현재 가입자 간의 국민건강보험 부담은 지역가입자가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며 "전세와 같은 생계형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돼 부담이 가중된다"고 전했다.

청년이 국민건강보험 관련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부여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제' 등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가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차의과학대학교 미래융합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세현 학생은 "퇴사 후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관련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청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타난다. 2000년도에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완성된 이후 국민건강보험은

당시 세워진 기틀에서 크게 변경되지 않은 채 그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등 단기·비정규 노동자가 증가하는 청년 세대의 노동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우진(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와 세대단위 부과라는 과거 기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가입자 기준이 과하게 제한돼 있는 점이 문제의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직장가입자 가입 기준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직장가입자로의 등록을 제한시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 약 2,800만 명 중 초단시간 취업자는 약 174만 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노무사는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한 가입 조건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과중되는 문제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편되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 국민건강보험 도입 당시에는 일부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지역가입자는 재산을 고려한 부과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소득과 파악이 가능해졌음에도 여전히 재산 기준에 머물고 있다. 김대표는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워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파악은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홍보 미흡이 청년의 인지 부족을 야기했다는 분석도 나타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위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초기 가입자인 청년을 위한 맞춤형 홍보 방안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정 교수는 "현재 국민건강보험 홍보 중 초기 가입자 대상 맞춤 안내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 개편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할 창구가 전무하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타 사회보험

제도 내에는 청년 의견 수렴 기구가 존재한다. 국민건강보험에는 이러한 구조가 마련되지 않아 청년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주열(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청년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 포괄성을 위해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 노동자 특례보험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를 국민건강보험에 명시해 포괄성을 높인다는 의견이다. 정 교수는 "사각지대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단시간·플랫폼 노동자 특례보험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모든 가입자에게 개인단위 종합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시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부과돼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사라진다는 견해다. 김대표는 "보험료를 종합소득에 비해 부과할 경우 소득이 생기는 분야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해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청년 맞춤형 지침서를 제공해 청년 국민건강보험 인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가입자 전환에 따른 신청 사항과 지원 제도를 담은 청년세대 맞춤형 가이드를 가입 초기에 제공함으로써 혼란을 줄인다는 목적이다. 정 교수는 "청년 지침서를 제공하면 제도 인지도 상승 및 불필요한 체납과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존재한다. 청년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청년 대상 정책 토론회, 공청회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정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이 청년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국민건강보험 정책과정 참여 확대가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혜윤 기자 perple.pea06@gmail.com

(편집자주)

휴가철 한여름의 띄어벌보다 더 큰 난관에 부딪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관광취약계층'이다. 이들은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고 관광을 누릴 권리가 있으나 관광지에 방문하려 해도 접근부터 편의시설 보장까지 지원되지 않는 현실에 마음을 접는다. 이들의 관광권을 보장하고자 정부에서는 '무장애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관광 활동을 위해 환경 및 서비스 등 관광지 전반을 조성한다. 이를 도입해도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무장애 관광지는 어떤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일까. 본지는 무장애 관광지로 지정된 영덕 고래볼해수욕장을 직접 찾아 현주소를 살펴보고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조수윤 기자 wateryun77@naver.com

# 누구든 환대받는 여행의 시작



사진: 임지민 기자

## 무장애 관광지, 이름뿐인 열린 공간

관광취약계층은 관광을 누리는 과정에서 물리·심리적 제약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관광지 접근 시 교통·숙박·관광 시설 등의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고 관광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 지체장애를 가진 박종균(59)씨는 "여행지에 방문할 경우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마련돼 있지 않은 등의 제약이 많다"고술힌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무장애 관광지는 관광취약계층이 여행 중 겪는 물리·심리적 장벽을 최소화한 공간이다. 해외에서는 관광 지역 전역에 소리와 안내방송을 보청기로 직접 전송해주는 오디오 등의 환경을 제공한다.

정부 역시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열린관광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자체 관광지를 선정하면 비용·자문·홍보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도움을 받아 무장애 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은 ▲관광 약자의 이동 불편 해소 ▲체험형 관광콘텐츠 마련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무장애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182개의 열린관광지가 조성·운영되고 있다.

열린관광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인근 교통·숙박 환경까지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장애 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교통·숙박 등의 시설이 함께 정비돼야 하지만 이는 고려되지 않는다. 이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2023년 장애인인쇄 패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편의시설 이용 경험에 대해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9.6%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8.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5.4%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편의시설의 수에 큰 격차가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시설 조성이 단순 시설물 보수에 치중되다 보니 시각·청각·발달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물리적 설비나 정보 전달 체계는 여전히 미흡

하다는 견해다. 열린관광 열린관광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무장애 편의시설 수에 따르면 지체장애 8544건, 영유아 가족 2543건, 고령자 1178건에 비해 시각장애 812건, 청각장애 53건으로 간극을 보인다.

조성 이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관광지 운영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성 완료 후 지자체에게 개선사항 반영을 강제할 수 없다. 송화성(한림대학교 미래융합스쿨 융합관광경영전공) 교수는 "초창기에 선정된 열린관광지에 재방문했으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 중간이 끊겨있거나 안내책자와 다른 경우를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관광취약계층이 정작 무장애 관광지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관광 의지를 북돋우고 관광지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지원해야 하지만, 현실은 무장애 관광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기준 열린관광지 사업선정 2년 차였던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 관광객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열린관광지 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 '열린관광지를 알고 있다 (35.3%)', '열린관광지를 모른다 (64.7%)'로 나타났다.

무장애 관광지 인근 환경 조성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 심사 부실에서 비롯된다. 지자체가 열린관광지 사업에 응모하며 무장애 환경 조성 계획을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심사·보완한다. 이때 정부와 지자체 모두 내부 조성에만 집중하며 외부 시설 보완에는 소홀한 것이다. 조아라(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장애 관광지에서 일부 구역의 접근성만 개선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자체에 제공하는 컨설팅이 일회성에 그치는 점이 무장애 관광지 편의시설 격차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열린관광지 사업에서 정부는 신청 대상지에 적합한 무장애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지자체는 사업 공모 단계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나 시공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반영이 미흡해진다. 오성범(서경대학교 호텔관광과) 교수는 "지역에 어떤 유형의 장애인이 있는지와 별개로 행정상의 양적 개선에 치중된다"고 밝혔다.

사후 관리 미흡은 정부의 강제성 부재에 기인한다. 정부는 열린관광지 사업을 관리하며 지자체가 3년 이상 무장애 관광지를

운영하도록 점검한다. 점검 후 지자체에 시설 보완을 권고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제 시설 유지 및 보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오 교수는 "이용자의 의견 및 정기 수시 점검 결과가 실제 제재 수단과 연계되지 않고 권고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한된 홍보 방식이 무장애 관광지 인지도 부족의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홍보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 집중돼 있어 정보 격차를 겪는 관광취약계층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오 교수는 홍보의 중요성에 관해 "관광취약계층은 자막이나 화면낭독기와 호환되지 않으면 온라인 접근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무장애 관광지 설계 과정에서는 인근 생활환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된다. 정부가 이용자들이 관광지를 방문해 머무르고 떠나는 전 과정을 검토·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 씨는 "인간의 생존에 있어 먹고 배설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식당이나 화장실 등을 필수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지속적인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자체가 시공 과정에서 각 대상에 맞는 무장애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광인(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지속 가능한 관광지를 위해 전문가들이 계속 자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장애 관광지 조성 관리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된다. 열린관광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일정 운영 기간을 갖기에 관리가 미흡할 경우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유선(한국접근가능관광네트워크) 대표는 "열린관광지 인증의 상표 가치가 높다"며 "관리가 지속적으로 미흡할 경우 인증을 과감하게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홍보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전언한다. 관광취약계층 사람들이 무장애 관광지의 존재를 인지해야 하며 지자체가 장애인 시설 지원 단계와 연계 등 이용자와의 소통 강화가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오 교수는 "장애인 시설 지원 단계와 복지관 등의 연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신뢰를 기반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사진: 임지민 기자

▲휠체어를 타고 데크 길을 지나간다.



사진: 김혜윤 기자

▲수상 휠체어를 타고 바다로 나아간다.



사진: 임지민 기자

▲사위장 계단에 가로막힌다.



사진: 김혜윤 기자

▲사위장을 향하며 경사로를 지나간다.

## 영덕, 모두의 바다가 되도록

무장애 관광지의 현주소를 알아보기 위해 영덕 고래볼해수욕장으로 향했다. 영덕 고래볼해수욕장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이 갖춰진 무장애 관광지다. 이를 체험하기 위해 기자가 직접 일반형 휠체어에 올랐다. 도착하니 해수욕장 모래사장까지 이어주는 나무 데크 길이 보인다. 데크 길 덕분에 휠체어로 거친 돌길을 지날 우려 없이 모래사장에 도착한다.

수상 휠체어 안내소의 구조원과 거대한 크기의 수상 휠체어가 반긴다. 수상 휠체어는 일반형 휠체어와 다르게 튼튼한 바퀴가 달려있고 의자의 면적이 넓다. 수상 휠체어는 타인이 밀어줘야 이동이 가능해 구조원과 함께 바다에 들어간다. 튼튼한 바퀴의 부력으로 자연스럽게 물에서 떠오른다. 구조원이 뒤에서 잡아주고 있어 두 손으로 물을 튀기며 파도를 즐긴다. 석찬미(수상 휠체어 안내소) 직원은 "대개 동반한 여행자가 수상 휠체어를 밀어주며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물놀이를 마치고 수상 휠체어 안내소에 들어가 샤워실 전용 휠체어를 제공받는다. 샤워실 전용 휠체어는 의자 시트 부분에 구멍이 뚫려있어 하체를 씻기 용이한 형태다. 몸을 닦기 위해 샤워실로 향하는데 가파른 경사로로 인한 난관이 생긴다. 샤워장 정문에 계단만이 존재해 후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경사로를 올라가 샤워실 입구에 도달했지만, 입구의 문턱으로 인해 들어갈 수 없다. 샤워실 전용 휠체어라기에 이용했지만 사용할 수 없어 다시 반납한다. 눈앞에 샤워장을 뒤로 한 채 물에 젖어 찻잔한 상태의 몸을 수건으로 닦아낸다. 김성민(영덕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 대리에 따르면 "장애인 샤워실과 화장실은 조성 중"이라고 부연했다.

수상 휠체어와 나무 데크는 무장애 관광지만의 차별점을 보여주지만, 샤워장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아직이다. 무장애 관광지는 사회적 포용성을 높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여행 문화의 단초다. 지금의 시도가 쌓인다면 머지않아 모두의 바다가 될 수 있을 테다. 무장애 관광지가 당연한 사회가 되는 그날을 그려보자.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마음을 그리는 작가, 공감으로 청춘을 붙잡다

## 인스타툰 작가 오솔

<편집자주>

인스타툰. 인스타그램에서 짧고 간결하게 연재되는 웹툰이다.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작은 위로가 된다. 스마트폰 화면을 스치듯 넘기는 수많은 그림 중에서도 어떤 장면은 오랫동안 마음에 머물기도 한다.

오솔(28) 작가는 인스타툰을 통해 불안에 흔들리는 청춘의 시간을 그려낸다. 그는 인스타툰 시리즈 '인생 최악의 시기 26~28세'에 자신의 경험을 녹여내며 취업·진로·인간관계 같은 청년의 현실적인 고민을 솔직하게 풀어냈다. 나아가 SNS를 단순한 소통 창구가 아닌 감정을 나누는 공감의 매개체로 확장시켰다. 이는 다른 청년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공감과 위로로 작용하기도 했다.

청춘. 인생의 불이라 불리지만 막상 그 시기를 지나오고 있는 청춘은 끝없는 불안과 방향 속에서 길을 헤맨다. 이십춘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을 표현하고 풀어가는 방법을 통해 그 실마리를 엿보려 한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사진: 조수윤 기자

왜냐면 '과거의 나'를 만나면 꼭 말해주고 싶었으니까.

현실 아래 탁해진 꿈

오솔 작가의 어린 시절 가장 큰 즐거움은 만화였다. 특히 만화 속 주인공이 자유롭게 모험을 떠나는 모습에 깊이 매료됐다. 당시 그는 화면 속 인물이 동료들과 함께 여정을 누비는 모습에 자신도 같은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의 막연한 동경은 만화가라는 꿈으로 이어졌다.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디지몬 어드벤처>라는 만화를 봤어요. 주인공이 디지몬이라는 몬스터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내용이었어요. 자유롭게 모험하며 성장하는 주인공이 무척 부러웠고 저도 그들과 여정을 함께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에선 몬스터와 여행을 할 수 없으니 제가 직접 여정을 떠나는 만화를 그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누구나 어린 적 꿈은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그는 대학 진학을 위해 성적에 맞춰 환경디자인학과에 입학했다. 이후에도 전공 수업인 인테리어 분야에 흥미를 갖지 못했고, 졸업 시기에 맞춰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전공에 대한 애정도 부족했기에 직업 안정성과 보수 등 현실적인 조건에 맞춰 건설·건축업계로 방향을 전환했다.

“성적에 맞춰 진학하다 보니 전공이 잘 맞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 취직에 성공한 학과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테리어 분야의 업무 강도나 임금 수준이 제가 바라는 조건과는 맞지 않더라고요. 결국 타 분야를 고민하다가 건설·건축 분야를 택했죠. 비전공자지만 취업 요건에 맞춰 공학이나 역학을 새롭게 공부하고 건축 기사·건설 안전 기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했어요.”

취업 준비 끝에 그는 대기업 건설업체에 입사했다. 그 안에서 그는 건축물의 금액을 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직장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성취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회사는 위계적이었고 자유로운 성향의 그와는 맞지 않았다. 결국 그는 적성에 맞는 일을 이룬 시일 내에 찾고자 결심했다. 그렇게 그는 입사 후 1년, 27세의 나이로 회사를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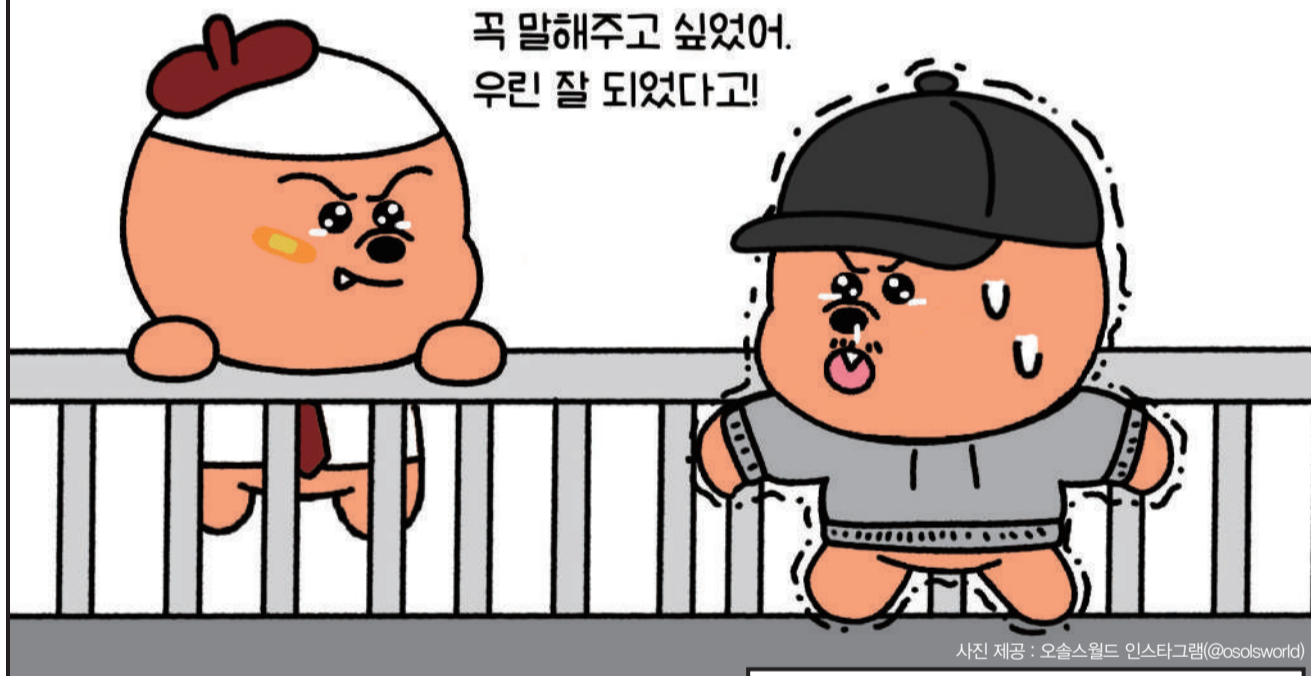


사진 제공: 오솔월드 인스타그램(@osolworld)

▲오솔 작가가 그린 인스타툰 '인생 최악 시기 26~28세' 프롤로그의 한 장면

다 잘되었다고. 그러니 걱정 말라고.

생각을 하니 너무 막막했어요. 어차피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 거라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퇴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 생각해서 퇴사를 결정했죠.”

‘이십춘기’를 풀어나가다

퇴사와 동시에 그는 자신이 좋아하고 진정 하고 싶은 것에 대해 고찰하기 시작했고 오래 품어왔던 만화에 다시 눈길을 돌렸다. 그가 초창기에 그린 인스타툰은 소위 일컫는 ‘짤’이었다. 2030이 공감할 만한 그림에 글귀를 넣어 재치 있게 표현한 그림을 게시했다.

“퇴사 후 무언가에 온전히 몰두해 보자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1년 동안 제가 좋아하면서 업으로 삼을 일을 찾지 못하면 건설업에 돌아가려 했죠. 그때부터 제가 뭘 좋아했는지 생각하다 떠오른 게 만화예요. 취업 준비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품어온 생각들을 만화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었죠. 당시에 ‘짤’을 그려내는 것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짤에 생각을 담아 재치있게 표현하려 했어요.”

그러나 목표한 것과 달리 초기 인스타툰 성과는 미미했다. 인스타툰 작가는 넘쳐났고 눈에 띄는 성과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퇴사 후 1년을 자신의 ‘인생 최악

시기’라 부른다. 졸업과 취업까지 수월하게 이어지며 ‘오르막길 인생’을 걸어왔지만 현실은 달랐다.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채 성과 없는 노력만 이어갔고 금전적·정신적 압박은 날로 그를 옥죄었다.

“이전까지는 수석 졸업에 자격증 합격, 대기업 취업까지 순탄했죠. 그런데 퇴사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얻은 건 없고 잃은 게 많았어요. 인스타툰이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모아 놓은 돈도 다 쓰고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떨어졌죠. 당시 오랜 기간 만나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졌고요. 제가 좋아서 그리기 시작한 인스타툰으로 현실적인 조건들이 나빠지면서 ‘인생 최악 시기’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인스타툰을 접고 취업을 준비하려 했으나, 우연히 ‘이십춘기’라는 신조어를 접하게 됐다. 이십춘기는 20대에 겪는 제2의 사춘기를 의미하며 진로·취업·인간관계 등의 문제에 직면해 혼란과 성장을 겪는 시기를 일컫는다. 당시 그는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겪는 이들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얻었다. 이를 계기로 ‘인생 최악 시기 26~28세’ 인스타툰 시리즈를 연재하며 자신이 갖고 있던 내밀한 고민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인생 최악 시기 26~28세”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 취업, 연애 등 현실적인 고민과 생각을 담은 작품이에요. 20대를 지나면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했을 법한 고민이 있지만 이를 공유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 또한 그 고민을 해소하고자 이 인스타툰을 시작했죠. 제게 있어 중요한 것은 사소한 부분까지도 꾸밈없이 그려내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 친구가 취업에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했거나 불합격한 친구를 보며 내심 안도했던 순간까지도 작품에 담았어요.”

그가 연재한 ‘인생 최악 시기 26~28세’는 청년의 공감대를 자극하며 큰 관심을 얻었다. 동시에 독자들은 댓글이나 개인 메시지 등의 온라인 창구를 통해 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청년의 진솔한 이야기를 마주한 그는 그 시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공감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 그렇게 탄생한 두 번째 인스타툰 시리즈가 ‘인생 최악 시기 26~29세’다. 전작이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했다면 해당 시리즈는 청년의 고민을 바탕으로 한 경험을 녹여내 함께 고민의 답을 찾아가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전 코너를 연재할 때 독자들이 장문의 개인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자신의 진로를 향해 피나게 노력했지만 막상 목표에도

달한 뒤 적성과 맞지 않아 고민하는 등 현실적인 이야기였죠. 저는 26~29세가 아직 20대이면서 곧 30대에 접어드는, 망설임과 포기를 동시에 마주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루며 독자들이 위로를 얻고 당장의 고민을 헤쳐나갈 용기를 찾길 바랐어요.”

그는 인스타툰 연재를 통해 느낀 바를 토대로 독자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자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인스타그램 스토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혹은 ‘대신 물어봄’ 등의 SNS 창구를 열어 적극 소통했다. 개인 메신저로 들어오는 고민 중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독자와 공유하면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제적인 도움과 공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인 메신저로 오는 고민 중에 제가 겪어보지 못한 것들도 꽤 많아요. 하지만 이 사람의 고민을 다른 독자들이 알지도 모르잖아요. 공유하면 위로뿐 아니라 도움도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올려서 독자들의 고민을 공개적으로 나눴어요. 비슷한 불안을 겪었던 다른 독자가 조언해주거나 경험이 없더라도 서로 위로를 하는 공간이 됐죠. 만화를 넘어 독자와 더 끈끈해질 수 있는, 더 나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청춘의 흔들림이 서로에게 번지다

오솔 작가에게 인스타툰은 무엇보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털어놓는 동시에 독자들의 고민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타인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낸다. 개인의 서사와 사회적 공감이 교차하면서 인스타툰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선 소통의 장으로 확장된다. 그림을 통해 그는 말하고, 독자들은 그 언어에 반응하며 새로운 대화를 이어간다. 그의 작품은 개인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세대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인스타툰은 저에게 단순히 그림을 올리는 공간이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를 담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과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작품을 올릴 때마다 서로 대화하듯 이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해요. 단순히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과정이기에 저한테 인스타툰은 직업이자 또 하나의 일기장 같은 공간이에요.”

나아가 그는 공감을 매개로 한 소통이야말로 청년의 흔들림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강조한다. 불안을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지만,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을 나누는 경험이 쌓일수록 이해의 폭은 넓어진다. 이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깊이가 더해지고, 타인에 대한 이해 역시 확장된다는 의미다. 청춘의 시기는 흔들림과 불안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함께 견디며 서로를 지탱하는 순간, 불안은 곱씹된 상처가 아니라 서로를 이어 주는 감정의 끈이 된다.

“처음부터 자신의 불안에 대해 말하긴 힘들겠지만, 사람들이 서로 불안에 대해 들어주고 공감을 나누는 관대함을 지녔으면 좋겠어요. 그림이라는 작은 창을 통해서라도 마음을 마주할 수 있다면 청춘의 흔들림도 조금은 덜 외로운 것이라 생각해요. 결국 이해와 공감이 서로에게 전하는 위로가 되는 거죠.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접할 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고 작은 용기를 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힘이 되니까요.”

# 가상 공간에서 되살아난 현실의 몸짓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화려한 액션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로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았다. 화면 속 캐릭터들의 생생한 움직임 뒤에는 실제 배우들의 연기가 숨어 있다. 배우들이 몸으로 표현한 춤과 표정, 미세한 제스처는 특수 장비가 움직임을 기록해 디지털로 변환하면서 화면 속에 재현됐다. 그 결과 가상의 캐릭터들은 마치 현실 속 인물처럼 살아 숨신다. 이처럼 현실의 연기를 디지털로 전환해주는 핵심은 바로 '모션캡처'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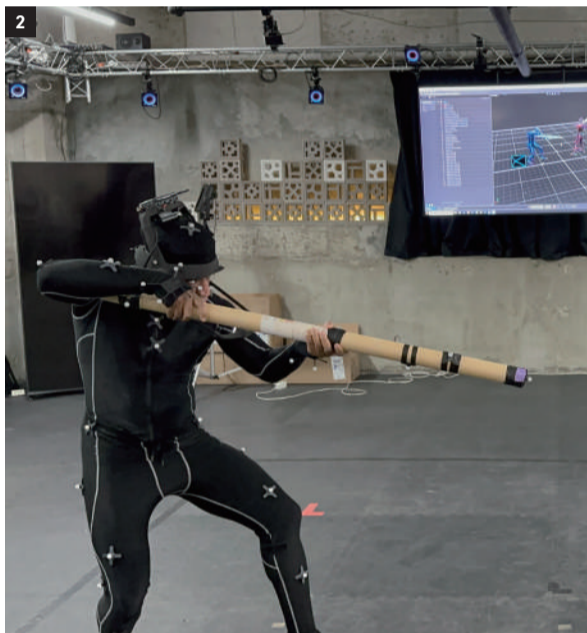
모션캡처는 특정 대상의 움직임을 센서로 기록하는 기술이다. 대개 목, 어깨, 손목과 같은 관절 부위에 부착된 센서가 몸짓이나 동작을 포착해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면, 해당 자세는 3차원 화면 위에 그대로 재현된다. 영화 속 캐릭터가 검을 휘두르거나 게임 속 아바타가 달리는 장면도 모션캡처 기술을 통해 더욱 실감 나는 묘사가 가능하다. 재현된 모션캡처 데이터에 별도의 그래픽만 입히면 되기 때문이다. 박상민(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교수는 "모션캡처 기술은 대표적으로 할리우드 영화 뿐만 아니라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모션캡처 기술이 영화나 게임 산업을 넘어 스포츠, 의료, 로봇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람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가상환경연구실) 연구원은 "모션캡처는 스포츠·재활·기기 조작 현장에서 실시간 피드백과 개인 맞춤형 코칭을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빛의 반사를 좌표로 바꾸다

모션캡처 기술의 핵심은 3차원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있다.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 ▲광학식 ▲관성식 ▲마커리스 모션캡처 등으로 구분된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광학식 모션캡처'는 적외선 카메라와 빛을 반사하는 마커(Marker)를 활용해 대상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카메라 주변의 적외선 조명에서 빛을 쏘면 팔이나 다리에 부착된 마커가 이를 반사한다. 적외선 카메라는 이 반사 신호를 감지해 마커의 위치를 기록하고 여러 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촬영한 정보를 합쳐 입체적인 영상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홍원빈(예원예술대학교 게임애니메이션전공) 교수는 "적외선 카메라는 빛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적외선에만 반응하므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마커를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며 "이에 안정적인 움직임 추적기 가능하다"고 전했다.

“우리가 즐기는 생생한 콘텐츠의 숨은 주역은 바로 모션캡처다”



광학식 모션캡처에서는 대상의 좌표값을 정밀하게 추적하기 위해 '삼각측량법'이 활용된다. 2개의 시점에서 동일한 지점을 관찰한다고 가정해보자. 두 시점과 하나의 점을 연결하면 하나의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삼각함수의 원리를 통해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 및 각도 계산 시 상술한 지점의 위치를 구할 수 있다. 같은 원리로 2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같은 마커를 포착하면, 각 카메라의 위치와 시선 각도를 토대로 가상의 삼각형이 형성된다.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를 계산하면 마커의 실제 공간 좌표를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연산이 수백 개의 마커에 대해 초당 수백 차례 반복되면 인체 관절이나 물체 표면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3차원 궤적으로 재현된다. 수집·계산된 좌표값은 인체 관절에 대응돼 최종적으로 컴퓨터 그래픽 환경 속에서 실제와 유사한 움직임으로 구현된다. 김규현(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교수는 "카메라가 많을수록 마커에서 반사되



는 빛을 다양한 방향에서 수집할 수 있어 위치 추적의 정확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삼각측량법을 활용해 높은 정밀도를 확보함으로써 인체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이 광학식 모션캡처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영화·애니메이션 등 사실감이 중요한 분야에서 광학식 모션캡처가 주로 사용된다. 장민수(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 의과대학 병리학 전공) 연구원은 "광학식 모션캡처는 정확도와 정밀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띠지만, 카메라가 설치된 공간 내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 센서가 해석하는 움직임의 언어

광학식 모션캡처와 달리 '관성식 모션캡처'는 모션캡처 슈트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좌표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빛을 반사해 좌표를 표시하는 마커와 달리 슈트의 센서는 좌표 정보를 직접 컴퓨터에 전달한다. 김 연구원은 "관성식 모션캡처는 광학식 모션캡처의 단점인 공간 제약과 장애물로 인해 마커가 가려지는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라고 전했다.

관성식 모션캡처는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센서'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IMU 센서는 물체의 가속도와 각속도\*\*를 동시에 포착해 대상의 이동 거리 및 방향, 동작을 실시간 3차원 데이터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달리는 사람의 허리에 IMU 센서를 부착하면 센서가 앞뒤로 흔들리는 가속도와 몸통이 좌우로 회전하는 각속도를 동시에 감지한다. 이를 통해 몇 미터러 어떤 방향으로 뛰었는지, 몸을 어떻게 틀었는지를 즉시 3차원 좌표로 환



1 모션캡처 슈트를 입은 배우의 동작이 화면 속 데이터로 재현되고 있다.  
2 배우들이 격투 장면을 모션캡처 기술로 구현하고 있다.

산할 수 있다.

IMU 센서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센서 내부에 ▲가속도 ▲자이로 ▲지자기 센서가 탑재돼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가속도 센서'는 물체가 직선으로 움직이는 정도를 측정한다.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는 중력이 작용하는 수직 방향을 감지해 기기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다. 반대로 물체가 이동할 때는 상하좌우 방향의 속도를 감지해 대상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측정한다. 홍 교수는 "가속도 센서는 동작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속도 센서만으로는 물체의 회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이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자이로 센서'다. 자이로 센서는 회전 운동을 추적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물체가 시간당 몇 도 만큼 회전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좌우로 기울였을 때 화면이 회전하는 것이 자이로 센서의 대표적인 예다. 장 연구원은 "물체가 시간당 몇 도 회전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자이로 센서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이로 센서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누적되며 오류가 나는 현상을 피하기 어렵다.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만으로는 동작의 방향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보정 역할을 하는 것이 '지자기(地磁氣) 센서'다. 지자기 센서는 지구가 방출하는 자기장을 관측한다. 지구의 자기장은 일정하므로 이를 통해 사방을 구분하고 동서남북과 같이 물체가 어느 쪽을 향하는지 알려준다. 이는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원리와 같다. 박 교수는 "관성식 모션캡처는 자기장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변에 금속 구조물이 있으면 위치값이 서서히 변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성식 모션캡처는 광학식 모션캡처와 달리 빛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아 실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좌표를 추적할 수 있다. 센서를 신체에 부착해 관절의 가속 및 회전을 측정하기 때문에 격렬한 동작에서도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스포츠 분야에서 관성식 모션캡처가 주로 활용된다. 장 연구원은 "관성식 모션캡처는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고 센서가 곧바로 컴퓨터에 데이터를 전달하므로 광학식 모션캡처에 비해 데이터 전송 지연이 적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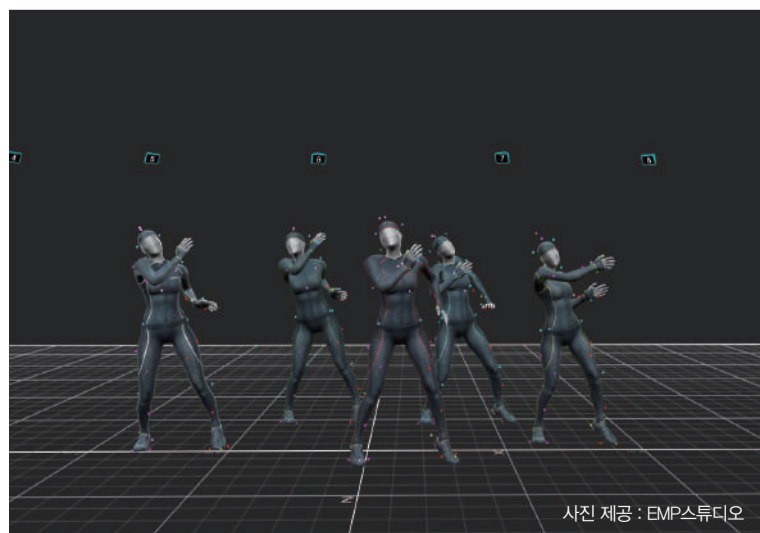
## 빛의 삼원색으로 기록하는 형상

마커리스(Markerless) 모션캡처는 광학식·관성식 모션캡처에 비해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 없이 RGB(Red-Green-Blue) 카메라를 이용해 움직임을 추적하는 방법이다. RGB 카메라는 빛의 삼원색인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조합해 색상을 표현하는 장치로, 촬영 스튜디오 같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와 유사하다. 이를 활용하면 피사체의 색상, 질감, 명암 등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특수 센서나 고가 장비 없이 고해상도 영상만으로 충분한 품질의 포즈 추정이 가능해 장비·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RGB 카메라로 사람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술은 촬영된 화면에서 배경과 사람을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때 배경과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이 활용된다. 세그멘테이션은 피부나 옷과 같은 특정 색상이나 명암을 활용해 대상의 신체 부위를 인식하고 이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분리된 인물의 관절 위치가 좌표로 계산돼 가상의 골격 구조에 연결된다. 이후 인공지능이 흔들림이나 오인식된 부분을 보정함으로써 실제 사람과 유사한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완성된다. 김 연구원은 "RGB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의 각 프레임에서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머리·몸통·손·발 등의 관절을 포착한다"고 설명했다.

마커리스 모션캡처는 신체에 부착하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낮은 비용 부담과 높은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다른 모션캡처 방식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져 실무에서 사용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권정훈(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연구본부 융합플랫폼 연구실) 본부장은 "마커리스 모션캡처를 활용할 시에는 자유로운 동작을 수행하기 손쉽다"고 전했다. 이어 김 교수는 "마커리스 모션캡처는 미래에 유용하게 사용될 방법"이라며 "낮은 정확도라는 문제만 해결한다면 완벽에 가까운 모션캡처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속도 : 단위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각속도 : 회전 운동하는 물체가 단위 시간에 움직이는 각도  
\*\*\*미러리스 카메라 : 거울 없이 빛이 직접 이미지 센서에 도달하는 구조의 카메라



▲모션캡처 기술로 구현된 군무 장면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삼 학 송 · 대책 없는 전공의 외주화

개강과 함께 또 하나의 제도가 실험 대 위에 올랐다. '자기설계전공'이 그 주인공이다. 해당 전공은 창의융합대학 내 상상력인재학부에 속한 전공으로, 학생이 직접 교육과정 전반부터 학위명까지 기획하는 'DIY(Do It Yourself)'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 교육은 이제 대학들이 앞다퉀 내세우는 전략이 됐다. 취업 시장에 걸맞은 인재를 기르거나, 전공과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에게 탐색의 시간을 주겠다는 명분에서다. 본교의 자기설계전공도 이 흐름에 편승해 등장했다. 상상력인재학부 학생이 전공을 신청한 후 전공 기초 교과목을 수강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트랙·학과(부)·교내외·국내외 수업에 관계없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본교의 승인을 받아 수강할 수 있다.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문제는 본교가 타 대학 수업까지 전공 과정으로 편입을 허용하며 그 의미를 흐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전공일 뿐 전공을 '외주화'시켜 마땅히 대학이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교육을 타 대학의 강의로 채워 넣는 셈이다. 왜 제집을 두고도 남의 집에 가 밥을 얻어먹어야 하는가. 그렇게 외부 수업에 의존하며 융합 교육이라는 허울을 치장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더 심각한 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인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자기설계전공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상상력인재학부나 지도교수와 상담하며

전공 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자기설계전공이 속한 상상력인재학부의 교수는 2명에 불과하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본교의 전임교원 1명이 담당해야 할 학생 수는 평균 31명에 이른다.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다지만, 그 선택을 함께 설계해 줄 조력자를 충분히 확보했다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대학본부는 자기설계전공을 통해 '본교를 대표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그 인재를 길러낼 지도 체계는 희미한 듯하다. 일말의 희망을 갖고 학생이 전공 과정을 기획하더라도 뼈대를 함께 만들어 줄 조력자도 부족한 현실이니 말이다. 학생 주도적 전공 탐색이라는 취지는 물론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마저 공허하게 들릴 정도다.

교육은 최소한의 기반이 깔려 있을 때 실현 가능하다. 지금의 자기설계전공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면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도 전가하는 형국이다. 대학본부가 진정으로 학생의 주도적인 전공 탐색을 가능케 하려면, 학생의 학문적 호기심을 함께 설계해 줄 땅부터 다지는 노력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교육을 '셋방살이'처럼 불편한 구조 속에서만 융합 교육을 흉내 낼 것인가. 학생이 교육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곁에서 지지하고, 그 안에서 학문이 뿌리내릴 토대가 마련되는 그날이 오길 진정으로 바라본다.

이승희 편집국장



지난 24일 첫 출근날 건설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베트남 청년노동자 **故 응오뚜이롱 씨**를 기리는 49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렸다. 그의 죽음은 폭염 속에서도 이주노동자만 단축 근무 대상에서 배제된 차별의 산물이었다. 이주노동자는 근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지속 근무해야 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차별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우리와 똑같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는 법과 제도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차별이다. 고향을 떠난 노동자의 꿈이 차별 앞에 스러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 ■ 기자수첩

'100억'.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지원금 규모다. 연극, 뮤지컬, 무용 등 대부분의 분야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인디밴드'는 배제됐다. 인디밴드는 지원 대상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대중·기초예술 분야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다. 대중예술처럼 소비되지도, 순수예술과 같이 활동하지도 않아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다. 정확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인디밴드로서 꿈을 키우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인디밴드는 오랜 시간 한국 대중문화의 변두리에서 독자적 감수성과 실험성 등을 이끌어온 주체다. 인디밴드의 인디는 '독립된(Independent)'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말로 기획사 등 거대 자본에 종속되지 않은 독자적인 음악 활동을 의미한다. 이들은 대

## 시대의 메아리를 위해

형무대보다 소규모 공연장과 지역사회를 주 무대로 삼으며 관객과 호흡하는 '현장성'을 중시한다.

이들의 현장성은 단순한 만남의 형식을 넘어선다. 인디밴드는 당대 사회의 분위기·태도·문제의식을 가사와 사운드에 응축시킨다. 그렇게 형성된 음악은 곧 시대정신을 드러내며 기록을 넘어 다음 장면을 향한 방향을 제시한다. 1985년 들국화의 1집 중 〈그것만이 내 세상〉은 독재정권에 자유를 억압당하던 시대에서 벗어나고 싶은 청년에게 내면의 혁명으로 작용했다. 이 노래는 현재까지도 개인과 사회에 펼쳐지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돼주고 있다.

인디밴드가 시대정신을 오래도록 노래하기 위해서 관망적 자세를 가진 지원자가 필

요하다. 그 역할을 정부가 제도로서 담보할 수 있다. 정부는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체계적 지원을 통해 인디밴드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손길을 건내야 한다는 뜻이다. 인디밴드가 자생력을 갖춰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인디밴드의 현실을 조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서 구체적인 지원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그 위에서 인디밴드는 현장성과 시대정신을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 뜨거운 무대의 열기가 퍼져 시대를 달구는 그 날에 정부가 함께할 수 있길 염원한다.

조수윤 기자 wateryun77@naver.com

## ■ 낙산에 올라

# 전공과 직업, 반드시 일치해야 할까?

대학에 진학할 때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이 미래 직업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학과를 선택한다. 부모님과 교사들도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알맞은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 사회에 나와 보면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아예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과연 대학 전공은 직업 선택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보면, 전공이 직업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의사, 간호사, 교사, 약사 등 국가 고시 자격증이 필요한 일부 전문 직종에 한정된다. 이러한 직업은 관련 학과에서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종사할 수 있다. 그

러나 대부분의 직업군에서는 전공보다 개인의 역량, 경험 그리고 성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국문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IT 기업에서 기획자로 일하거나 철학 전공자가 마케팅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전공이 무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공 외의 다양한 요소들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대학에서 배운 지식보다도 실무 경험, 인턴십, 대외활동, 소프트 스킬 등이 취업과 커리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제는 하나의 직업만을 평생 이어가는 시대가 아니다. 변화하는 산업에 맞춰 자신을 유연하게 재설계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이 과정에서 처음 선택한 전공은 방향을 잡는 나침반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평생

결정짓는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전공은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특정 전공을 통해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 어떤 일에 몰입할 수 있는지를 경험해보고 커리어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공이 흥미롭지 않거나 직업과의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느껴진다면 과감히 방향을 전환하거나 다른 역량을 쌓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공이 아니라, 무엇을 잘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의미를 느끼는가에 대한 이해다. 전공은 인생의 출발선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전공과 무관한 길을 걷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길이라면 이는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결정일 테다.

김태우(인문 4)

## ■ 의화정

# 행정과 공무원, 새로운 시대의 책무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오랫동안 안정적인 일자리의 상징이었다. 정년이 보장되고, 외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도적 울타리는 직업공무원제가 지닌 본래의 장점이었다. 직업공무원제는 개인에게는 외부적 변화에도 안정성을 보장해 평생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는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공공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행정의 풍경은 시대와 함께 달라졌다. 권위와 통제 중심의 행정이 '서비스'로 전환됨에 따라 공무원은 단순한 집행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자리 잡았다. 규정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폐쇄적 절차에서 열린 행정으로 변화하였고, 이는 시

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주민 친화적 제도를 확산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최근 행정 현장은 새로운 모습에 부딪히고 있다. 서비스 지향이 강조되면서 공무원의 역할은 점차 개별 민원 해결과 즉각적 대응에 집중됐고, 무리한 요구를 감내하는 공무원의 모습은 대중에게 흔하고 익숙한 이미지로 굳어졌다. 우수 인재의 유입이 줄고 이탈이 늘어나는 것은 인사행정에 서 큰 고민거리가 되었다. 단순한 안정성만으로는 공무원의 직업적 가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 사회가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좁다. 많은 시민들은 민원 창구에서 만나는 공무원의 모습이 행정을 대표한다고 이해한다. 물론 민원 처리는 행정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행정을 설명

할 수는 없다. 행정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그려내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행정이 직면한 문제들은 더욱 복잡하다. 인구 감소, 환경 위기 등은 단순 민원 처리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이 난제를 풀어나기 위해서는 행정의 기능과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우리 사회가 새롭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공익을 바라보는 힘,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모두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행정을 불편을 해소하는 창구로만 이해하지 않고,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보는 시선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강혜연(융합행정학과) 교수



## 기자사령

임 면  
편집국장 이승희(사회과학 3) 편집국장 김유성(인문 4)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제59기 수습기자 모집

## 한성대신문사 제59기 수습기자 모집

진실을 기록하고, 변화를 이끌어라



### 01 모집대상

- 본교 재학생(학번/전공/주·야간 무관)
- 4학기 이상 활동 가능자 우대

### 02 모집기간

- 9월 7일(일) 23시 59분까지

### 03 지원방법

- 교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 04 활동지원

- 학기당 비교과 포인트 100pt 지급
- 원고료 및 활동비(장학금) 지급
- 정기자 진급 시 명함 및 기자증 발급
- 개인 사무실 책상 및 PC 제공
- 사물함, 복합기 등 무료 사용
- 교내외 기자교육 프로그램 지원
- 퇴임 시 활동인증서 발급
- 편집국장 진급 시 총장공로상 추천

### 05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 인스타그램 @hansungnews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